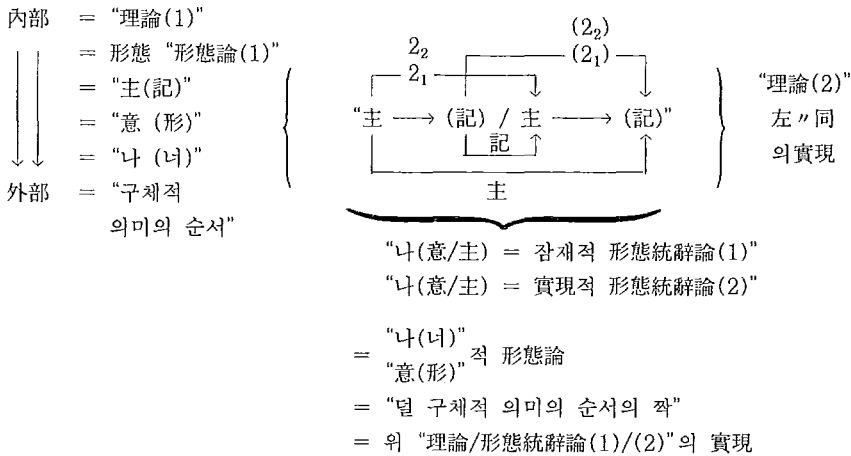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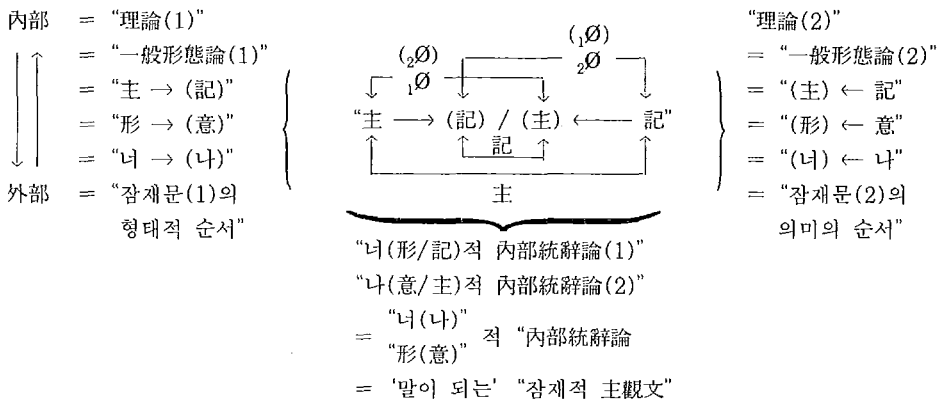


\*설명: “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너(나)적 一般(人稱)音韻論”은 바로 그에 先行하는 ‘力學적/형태적 指示<형태: 너> → 被指示 <의미: 나> 의 조직’으로서의 단계와 直結된 “생성”으로서, 그에 後行하는 “一般形態論”에 대하여 “理論의 位置”에 선다. 즉 ‘근원적 人稱적 指示 → 被指示 = “너(나)"/“이(그)”의 精神-/力學적 조직’이다. 이에 대하여 “非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나(너)적 音韻論”은 “物理-/實物-/의미적/“나”적 理論” 단계 즉 ‘가장 구체적 統辭·意味論단계’의 테두리 안에서의 “첫째의 의미상의 순서”의 “위치”에 서서 다음의 그 보다 의미가 구체적인 “形態論”단계에 앞서는 ‘非力學적/의미적/非人稱적 指示 <의미: 나> → 被指示 <형태: 너>의 조직’이다.

“非力學적 分析”



“力學적 分析”



\*설명: “非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形態統辭論”은 역시 “理論”으로서의 “統辭·意味論”의 테두리 안에서의 ‘둘째의’ 의미상의 순서의 위치에 서서 그 앞 단계의 “音韻論”과 함께 ‘의미적인 짝’을 이룬다. “助詞(-이/-가~-을/-를)/尊待(-시/-습)”를 예로 들 때 앞 “音韻論” 단계가 ‘의미의 총체’로서의 ‘動詞’의 ‘零(Ø)形’ 즉 “Ø형 助詞”/“Ø형 尊待(= 반말)”라면, 이 “形態統辭論” 단계는 “主一目一動”의 ‘기본 틀’에서 ‘첫째로: (否定적) 指定詞 “아니다”/主觀動詞 “좋-·싫-”의 앞과 指定詞 “이다”/存在詞 “있다”의 앞의 “目”에 해당하는 위치에서의 “이-가” 및 “-시”, 그리고 그 보다 ‘의미’가 더 ‘구체적’인 “主觀引用動詞” 즉 “記述動詞” “좋-/싫어하”와 “행위 동사” “먹-”, 그리고 ‘둘째로’: ‘與格’ “에게” 및 ‘目格’ “을/를” 動詞의 “目”에 붙는 “-을/-를” 및 “-습”이라고 할 수 있다. 즉 이들 각각은 앞의 “Ø형”과 각각 “Ø형-有형”이라는 ‘의미적인 짝’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. 이들 각각의 “짝”의 “기본 틀”로서의 “主一目一動”은, “行爲者一行爲”라는 ‘의미적인 짝’의 ‘계속 반복’을 나타낸 것이다. 즉 “主一動”을 ‘일차적 행위자—행위’라면 ‘目一動’은 ‘이차적 행위자—행위’이다. 따라서 소위 ‘二重主語文’이라고 말하는 “主一目-이/-가 좋/싫(아니다/되다/있다/크·작다)文”은 이러한 ‘행위자—행위’라는 ‘等方向적/반복적 의미적 짝 觀’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.

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는 아무리 설명을 새로이 시도해도 결국은 ‘순환론’이 되어 버려서 설명이 ‘完了’되지 않는다(主語·主體 존대 “-시”/目語·客體 존대 “-습”에도 이러한 ‘순환론’이 되풀이 될 수 있다).

이와 반대로 ‘力學적 分析’에서의 (“(內部統辭論(1)/(2)”에 대하여 “理論”으로서의)一般形態論(1)/(2)”는 그것의 ‘생성’ 단계인 “內部統辭論(1)/(2)”와 “力學-/형태적 짝”을 이루고, 이 “짝”은 그 앞 단계로서의 “理論(1)/(2)”와 그 “생성”으로서의 “一般(人稱)音韻論”이 이루는 “짝”과 ‘<sub>1</sub>內部적인 = 直結된 = 근원적 짝’을 이루고, 이 “짝”의 ‘생성’으로서의 “外部統辭論(1)/(2)”에 대하여는 ‘<sub>2</sub>內部 = 변형’적인 “짝”을 이룬다. 즉 이 “一般形態論(1)/(2) 단계”는 “一般(人稱)音韻論 단계”에 이은 (구체적) ‘言語化 = 人稱化 = 潛在文化’의 첫 단계이다. 이 단계는 “非力學적 의미적 의미상의 순서의 조직”이 아니라 “力學적 /형태적 의미상의 순서의 조직”이다. 助詞(-Ø -이/-가~-을/-를~-도, -는, -만)/尊待(-Ø/-시/-습/-니)를 예로 들 때, “助詞 Ø단계”가 “屈折 = 終止語尾적 指示 = 疑問 → 被指示 = 대답 단계”라면, “助詞 有” = “-이/-가~-을/-를” 및 “-시~-습” 단계는 “動詞적 指示 → 被指示” = “屈折적/근원적 指示”와 直結된 “動詞적/구체적/변형적 指示(助詞) → 被指示(助詞)”, 그리고 “Ø 단계”와 “有 단계”의 “생성 단계”로서의 “<sub>1</sub>有·<sub>2</sub>有 단계” 즉 “-도, -는, -만” 및 “-니” 단계는 “代名詞적 指示(代名詞) → 被指示(動詞)” 단계라고 ‘비유’될 수 있다(\*여기 사용된 예들은 순전히 超言語적 수단으로서 사용된 것이므로 그것은 ‘力學적 조직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). 따라서 이 “力學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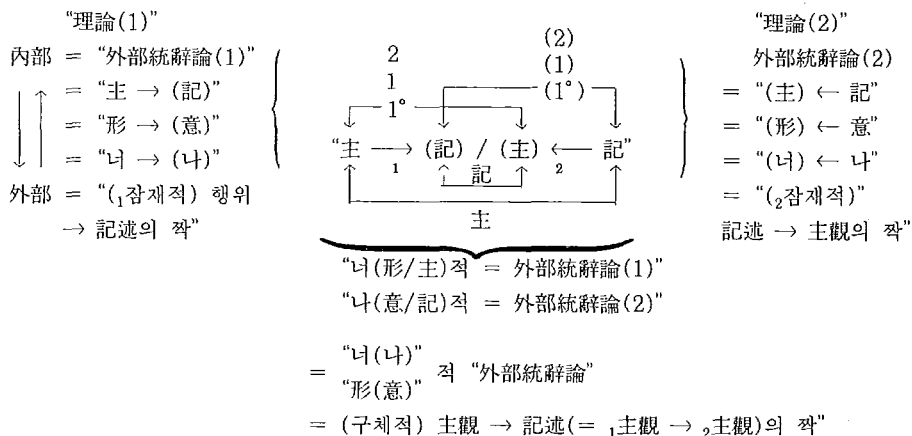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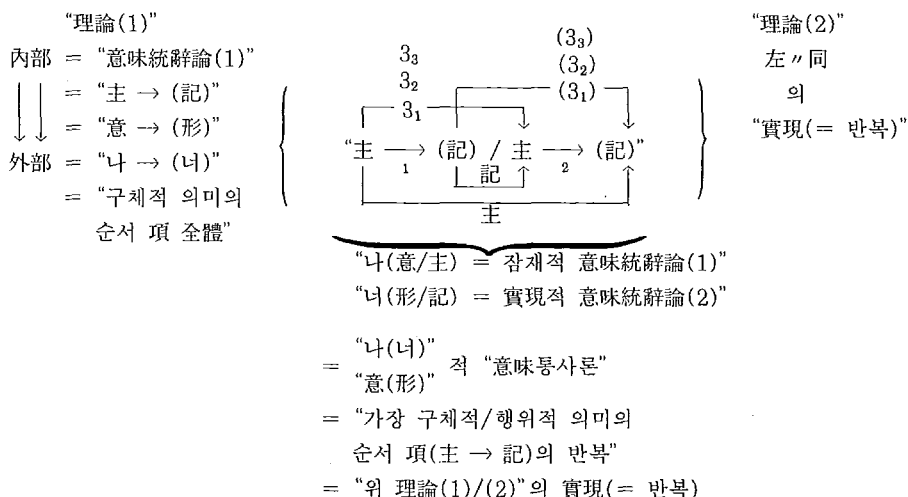
조직”으로서의 “指示 → 被指示”는 “非力學的 조직”의 그것을 모두 ‘否認’ 내지 ‘제거/배제’ 한 ‘조직’이다. 예컨대 “助詞: -이/-가~-을/를” 및 “尊待: -시~-습”은 “행위자 → 행위”의 “계속 반복”으로서의 “主—目”으로서가 아니라, “屈折(근원) → 動詞(변형) → 代名詞(생성)”이라는 “力學的/형태적 조직”에 ‘편입된’ “動詞적 = 변형적 指示(助詞/존대어미) → 被指示(動詞)”이다. 바꿔 말하면 이 “力學的 조직에 편입된” “尊待 = 형태와 助詞 = 의미”는 ‘可視(感)적 구체적 尊待/助詞’로서가 아니라, “潛在文(1)/(2)”로서의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의 “力學的 조직” 즉 “근원(굴절 = <sub>1</sub>잠재) → 변형(동사 = <sub>2</sub>잠재) → 생성(대명사 = 구체)적 조직”의 “1차(근원 = <sub>1</sub>잠재)/2차(변형 = <sub>2</sub>잠재)/3차(생성 = 구체)적” “근원(굴절 = <sub>1</sub>잠재) → 변형(동사 = <sub>2</sub>잠재) 생성(대명사 = 구체)”의 “조직” 안에 그 ‘자리(位置)를 확보’하고 있는 (力學的) “형태(尊待)와 의미(助詞)의 짝”이다. 따라서 그 “짝의 位置”의 “一般形態論(1)/(2)의 조직” 안에서의 ‘구체적 발견’은 “3차(생성 = 구체)적 조직”의 “변형(잠재)” 및 “생성(구체)”단계에서 가능하며, 그것의 ‘추상적 발견’은 “근원(잠재)”단계에서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. 즉 그 “발견”은 “잠재”와 “구체”의 ‘연속’ 또는 ‘相補’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. 예컨대 이미 \*앞에서 잠시 지적한 바와 같이 (\*앞: “一般形態論(1)/(2) 단계와 內部統辭論(1)/(2) 단계”의 그림 밑의 설명 참조), ‘첫째로’: “一般形態論(1) 단계”의 “尊 = F<형태>”/“助 = M<의미>”의 ‘짝’은 “근원(잠재)적 굴절적(終止語尾) 指示<의문> → 被指示<대답>의 조직”으로서의 ‘非可視(感)적 尊(F) 助(M)의 짝의 뭉치 F(M)’로 부터 출발하여 “변형(잠재)적 동사적 조직”으로서의 ‘非可視(感)적 助(M) → 尊(F)의 짝 M(F)’ (“-아, -게, -지, -고”/“-기”형 主觀助動詞 + “도, 는, 만”: “~먹고 <도, 는, 만> 싶~”/“~기 <도, 는, 만> 좋·싫~”) 단계를 거쳐 “생성(구체)적 대명사적 조직”으로서의 ‘(구체적) 尊(F) 助(M)의 짝 F(M)’ (= “근원적·指示적 <이·그·저>단계”에서의 <-이/-가, -을/-를> 즉 ‘尊 F <이, 그, 저> (助 M) <-이/-가, -을/-를, Ø>’의 ‘짝’ → “변형적·동사적 단계”에서의 ‘助 M <-이/-가>- (尊 F <-시>’의 ‘짝’ → “생성적·대명사적 단계”에서의 ‘尊 F <나, 너>- 助 M <그>’의 ‘짝’), 그에 이어서, ‘둘째로’: 이번에는 앞의 “(1)”과는 ‘逆方向’적 조직으로서의 “助 M”/“尊 F”의 ‘짝’은 “근원(<sub>1</sub>잠재)적 <sub>2</sub>굴절(대명사)적 指示 <대답: “나”> → 被指示 <의문: “너”>의 조직”으로서의 ‘<sub>1</sub>非可視적 助(M)—尊(F)의 짝의 뭉치 M(F)’로 부터 출발하여 “<sub>2</sub>변형(<sub>2</sub>잠재)적 <sub>2</sub>동사적 조직”으로서의 ‘<sub>2</sub>非可視(感)적 ‘尊(F)—助(M)’의 짝 F(M)’ (副詞性 “非主觀助動詞” + <도, 는, 만>: “~먹게 <도, -는, -만>되~”) 단계를 거쳐 “생성적 <sub>2</sub>대명사(終止語尾)적 조직”으로서의 ‘(구체적) 助(M)—尊(F)의 짝 M(F)’ (= “근원적·<sub>1</sub>引用적 <-아/-어하더>/<-나고하더>의 짝 M(F)” → “변형적·<sub>2</sub>引用적 <-아/-어 肯定 大答>/<-지? 肯定期待의 疑問>” → “생성적·自答<-어/-아> ~自問<-냐?/-가?> M/대답<-어/-아> ~의문<-야?> F의 짝 M(F)”)으로 끝난다(\*뒤 “-

一般形態論(1)/(2)의 同形の 조직” 참조: 따라서 “非力學적 分析”에서와 같이 “-이/-가 ~-을/-를” 및 “-시/-습”을 각각 따로 떼어서 分析할 것이 아니라, 그들을 動詞에다 붙여서 각각 “-이/-가 動詞”, “-을/-를 動詞”, “-시 動詞”, “-습 動詞”와 같이 “力學적/形態적 짝”으로서의 動詞적 指示(助詞/尊待語尾) → 被指示(動詞)의 내용을 담은 명칭을 붙여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).

‘말’을 특징짓는 ‘가장 일반적인 짝’으로서의 ‘의문(1) ≡ 대답(2)’의 “잠재적 力學적 조직”으로서의 “一般形態論(1)/(2)”는 ‘말의 寶庫’라고 할 수 있다. 이 “(잠재적/말이 아직 안된) 말의 寶庫”로 부터 (말이 되는/구체적) 主觀文(“너는~이 좋/싫든야?”/“나는~이 좋/싫들야”)이 “力學적/형태적”으로 ‘引出’되어 그와 ‘力學적/형태적 짝’을 이루고 있는 것이 “內部統辭論” 단계이다. 이 “內部統辭論”에서 “(1)/(2)”의 ‘짝’은 그 앞 단계인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의 (순전히 ‘형태’만이 있는) ‘짝’의 ‘外部적/구체적’ 즉 ‘動詞가 잠재적으로 등장하는 (1) 指示(형태 = 굴절) ≡ (2)被指示(의미 = 動詞)의 짝’이다 (따라서 “(1)”은 “굴절” 위주, “(2)”는 “動詞” 위주가 된다).

“非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形態統辭論”과 “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一般形態論(1)/(2)” 및 “內部統辭論(1)/(2)”의 기본적인 차이는, “구체적/非力學적 행위 = 被指示 = 의미 중심”의 “행위자 = 指示/형태/實現적·구체적 主觀·記述) → 행위(= 被指示/의미/잠재적 主觀·記述)”의 무한 반복으로서의 “(等方向·語彙적) 의미상의 순서” 즉 (等方向적) “행위자<sub>1</sub>·형태<sub>1</sub>·主觀(-이/-가) → 행위자<sub>2</sub>·형태<sub>2</sub>·記述(-을/-를) → 행위·의미(-도, -는, -만)”에서 “행위자<sub>1</sub>·형태<sub>1</sub>·主觀”/“행위자<sub>2</sub>·형태<sub>2</sub>·記述”에 力點을 둔 “(구체적) 의미상의 순서”가 곧 “形態統辭論” 전체를 지배하는 “理論”임에 반하여, 따라서 “主觀적 = 형태-/잠재-/근원-적: “F”적” “主觀(근원/ 형태/指示): “F”) → 記述(변형/의미/被指示: “(M)”)” 즉 “主(記)” = “F(M)”과 “행위적 = 의미-/구체-/변형-적: “M”적” “主觀(근원 <F>”) → 記述(변형: “M”)” 즉 “(主)記” = “(F)M”을 ‘구분하지 않는.’ 즉 “力學적 分析”에서와 같이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와 “內部統辭論(1)/(2)”를 ‘구분하지 않는’ (= ‘구체적 행위의 테두리 안에서 主觀과 記述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) 理論’임에 반하여 “力學적 分析”에 있어서의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와 “內部統辭論(1)/(2)”는, “(잠재적·근원적/力學적) 主觀 = 형태 = 指示 중심”의 “主觀(= 指示/근원·형태/잠재·근원적 ‘主觀 → 記述’) → 記述(= 被指示/변형·의미/구체·변형적 ‘主觀 ← 記述’)의 有限 반복으로서의 “(逆方向적·문법적) 의미상의 순서” 즉 “一般形態論(1) (= 主觀/근원: F)/一般形態論(2)(= 記述/변형: <M>) → 內部統辭論(1)/(2) (= ‘內部 행위’ 즉 內部 생성: M적 主觀·記述: <F>M)”이다. 이 “主觀/근원/內部: F”의 테두리 안에서의 “主觀/근원: F”와 “記述/변형: (M)”의 “짝”: “F(M)” = “主(記)"/“尊(助)” = “(말이 아직 안된 1잠재적) 一般形態論(1)/(2)”와 ‘直結된 짝’: “(F)M” =

“(主)記”/“(尊)助” = “(말이 되는 <sub>2</sub>잠재적) 內部統辭論(1)/(2)”가 이루는 ‘內部적 짝’의 ‘外部적/구체적/생성적 짝’ 즉: “(행위적) 主觀-記述”: “外部 M = 外部 행위적) F (M)” = “(外部 행위적) 主(記)”/“(助詞적) 尊(助)”가 곧 다음의 “구체 단계”로서의 “外部統辭論(1)/(2) 단계”이다.



\*설명: “非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形態統辭論”이 “구체적/非力學적 행위 중심”의 “행위자-행위”의 ‘계속 반복’으로서의 의미상의 순서: “주관·행위자<sub>1</sub>·형태<sub>1</sub>(-이/-가) → 記述·행위자<sub>2</sub>·형태<sub>2</sub>(-을/-를) → 행위·의미(-도, -는, 만)”에서 “형태<sub>1</sub>(행위자<sub>1</sub>/主觀) / “형태<sub>2</sub>(행위자<sub>2</sub>)”에 力點을 둔 ‘理論’임에 대해서 “意味統辭論”은 “구체적 의미”로서의 “행위”에 力點을 둔 ‘理論’이다. 그러나 이 두 “理論”은 모두, 앞의 “形態統辭論”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, “(근원적/主觀적) 主觀(形態/F) → 記述(의미/M)” 즉 “主(記)” =

“F(M)”과 “(변형적/행위적) 主觀(형태/⟨F⟩) → 記述(의미/M)” 즉 “(F)M”을 “구분하지 않는”, 즉 다 같이 구체적 행위 “M”의 테두리 안에서의 “主觀(F<sub>1</sub>) → 記述(F<sub>2</sub>) → 행위(M)”의 “구체적 의미상의 순서”에서 “主觀/記述(형태<sub>1</sub>/형태<sub>2</sub>: F<sub>1</sub>/F<sub>2</sub>)”과 “행위<sub>1</sub>/행위<sub>2</sub>(의미<sub>1</sub>/의미<sub>2</sub>: M<sub>1</sub>/M<sub>2</sub>)”의 “반복”에 力點을 두느냐 (形態統辭論의 경우), 그렇지 않고 “행위(의미)”에 力點을 둔 위와 같은 “반복”이나 (意味統辭論의 경우)라는 “순환론”으로 귀착되는 ‘같은 사실의 반복’에 불과하다. 위 그림에서 “근원<sub>1</sub>/근원<sub>2</sub>”에 해당하는 “主 → (記)/主 → (記)”는 “반복되는 實現”으로서의 “主觀 → 記述”을, “변<sub>1</sub>/변<sub>2</sub>”에 해당되는 “3<sub>1</sub>, 3<sub>2</sub>, 3<sub>3</sub>/(3<sub>1</sub>), (3<sub>2</sub>), (3<sub>3</sub>)”은 “반복되는 主 → 記”의 “의미상의 순서의 성격”을, 맨 밑의 “생성”에 해당하는 “主/記”는 가장 구체적/행위적 “의미의 테두리 즉 動詞”를 가리킨다. 그러므로 “意味統辭論”을 지배하는 “理論”으로서의 “의미상의 순서”는: “생성/행위 (= 主 → 記) → 변형/記述 (= 主 → 記) → 근원/主觀 (= 主 → 記)”이 되며, 이 “순서”는 그 앞의 “形態統辭論의 순서”: “근원/주관 (= 主 → 記) 변형/記述 (= 主 → 記) 생성/행위 (= 主 → 記)”와 ‘等方向적/순환론적 짝’이 된다. 따라서 “內部”에 해당하는 “理論”(근원<sub>1</sub>/근원<sub>2</sub> 및 변형<sub>1</sub>/변형<sub>2</sub>에 해당하는: “主 → (記)"/“主 → (記)”)의 “의미상의 순서의 성격”에 따르는 “계속 반복”… 즉 “行<sub>1</sub>적 主<sub>1</sub> 즉 行<sub>1</sub> → 行<sub>1</sub>적 記<sub>1</sub> 즉 主<sub>1</sub>” → “行<sub>2</sub>적 主<sub>2</sub> 즉 行<sub>2</sub> → 行<sub>2</sub>적 記<sub>2</sub> 즉 主<sub>2</sub>”…과 “外部”에 해당하는 “理論의 實現 (= 위 “理論”의 “반복…”)”은 ‘같은 사실의 반복’으로서의 “순환론적/等方向적(↓↓) 짝”이 된다.

“力學적 分析”에서의 “外部統辭論(1)/(2)”는 앞의 “(力學적 分析에서의) 內部統辭論(1)/(2)”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: “主觀/근원/內部: F”의 테두리 안에서의 “主觀/근원: F”와 “記述/변형: M”의 “짝”: “F(M)” = “主(記)"/“尊(助)” 즉 “(말이 아직 안된 <sub>1</sub>잠재적) 一般形態論(1)/(2)”와 ‘直結된 짝’: “(F)M” = “(主)記”/“(尊)助” 즉 “內部統辭論(1)/(2)”가 이루는 ‘內部적 짝’의 ‘外部적/구체적/생성적 짝’ 즉: “(행위적)主觀-記述”: “(外部 M = 外部 행위적) F(M)” = “(外部 행위적)主(記)"/“(助詞적)尊(助)”이다. 이 “(外部 행위적)"/“(助詞적)”이라는 ‘변형의 성격’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붙은 “F(M)"/“主(記)"/“尊(助)”가 곧 “(力學적) 外部統辭論(1)/(2)”를 지배하는 “理論”이다. 따라서 “<sub>1</sub>근원”에 해당하는 “主 → (記)”와 그에 ‘直結되는 <sub>2</sub>근원’의 “(主)←記”가 이루는 ‘(內部적) 짝’과 그것의 ‘(外部적) 짝’ 즉 ‘생성적 主 → (記)’가 이루는 ‘力學적 조직’의 ‘먼저 位置’에 자리 잡은 “<sub>1</sub>근원”의 “主 → (記)”의 “主”를 행위 動詞(“먹-”/“가-”)로 잡은 “行<대답: 먹들(아)> → (記)<대답: 좋아하들(아)>”가 이 “(力學적) 조직” 전체를 지배하는 “理論”의 位置에 서게 된다. 즉 이 “<sub>1</sub>근원”의 테두리 안에서 그와 直結된 “<sub>2</sub>근원”의 記<대답: 좋아하들(아)> → 主<대답: 좋들(아)>가 ‘內部적 짝’을 이루고, 그 짝이 “主<의문: 좋든(야)> → 記<대답: 좋들(아)>”와 “外部적 짝”을 이룬다. 이와 같이 “(근원적)主 → (記)”와 “(변형적)(主) ← 記”가 ‘(근원적·잠재적·형태적)의미상의 순서 (= 변형의 성

격)'에 따라 “力學적/逆方向적”으로 有限히 반복되는, 따라서 분명히 구분되는 “근원 (→)”과 “변형(←)”의 “짜”으로 이루어진 “力學적 조직”은 앞의 “非力學적 조직”이 “(근원적)主 → (記)”와 “(변형적)主 → (記)”를 구분함이 없이 ‘(구체적/어휘적)의미상의 순서(= 변형의 성격)’에 따라 “순환론적/等方向적/非力學적(→)으로 무한히 반복되는 짜”을 이루고 있는 것과는 대립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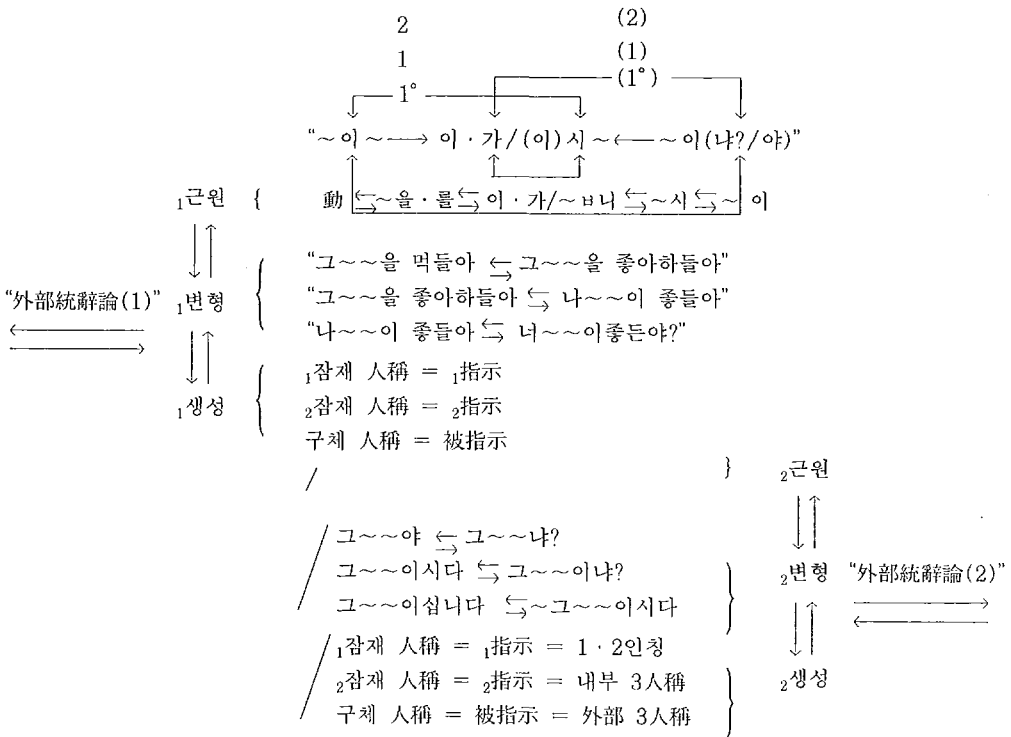
위 그림에서 ‘첫째로’: “변형 1°(1°)”의 “F → (M)/(F) ← M” 즉 右의 “(F) ← M”의 “M<行爲>”/左의 “F → (M)”의 “F<記述>”는 앞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의 “理論 단계”(= 1차적 1근원/2근원 단계) 및 “內部統辭論(1)/(2)”의 “理論 단계”(= 1차적 1변형/2변형 단계)에 이은 “外部統辭論(1)/(2)”의 “1근원/2근원적)理論 단계(1)/(2)”(= 1차적 1생성/2생성 단계)에 해당하고; ‘둘째로’: “변형 1(1)”의 “F → (M)/(F) ← M” 즉 左의 “F → (M)”의 “F<主>”/“(M)<記>”; 右의 “(F) ← M”의 “M<記>”/“(F)<主>”는 각각 (1변형적) 理論 단계(1)(= 2차적 근원/변형/1생성/2생성 단계)에 해당하고, 거꾸로, 右의 “(F) ← M”의 “M”/“(F)”; 左의 “F → (M)” “F”/“(M)”은 각각 (2변형적) 理論 단계(2) (= \*위 “(1)”과 같음)에 해당한다. ‘셋째로’: “변형 1(1)”의 “F → (M)/(F) ← M” 즉 \*위 그림의 “上(↑↑)/下(↑↑)”의 “생성 단계” 표시에서, 그 ‘첫째로(변형 “1”의 경우)’: “上: (M)/(F)”의 “(M)”/“下: F M”의 “F”/“上的 (M)”과 “下的 F”의 “짜”은 각각 (1근원적) 外部統辭論(1) (= 1근원적·3차적 근원<行爲>/변형<記述>/생성<主觀>단계)에 해당하고, 그 ‘둘째로(변형 “(1)”의 경우)’: “上: (M)/(F)”의 “(F)”/“下: F M”의 “M”/“上的 (F)”와 “下的 M”의 “짜”은 각각 “(1변형적) 外部統辭論(1)”(= 1변형적·3차적 근원<굴절적 1·2人稱>/변형<동사적·內部적 3人稱>/생성<대명사적·外部적 3人稱 = 外部적 1·2人稱>단계)에 해당하고, “그 첫째 = 1근원”과 “그 둘째 = 1변형”의 “생성 단계”로서의 “변형 2(2)”의 “F → (M)/(F) ← M” 즉 \*위 그림의 “下(↑↑)/上(↑↑)”의 “생성 단계” 표시에서: ‘첫째로(변형 “2”의 경우)’: “下: F M”의 “F”/“上: (M)/(F)”의 “(M)”/“下的 F”와 “上的 M”의 “짜”은 각각 “(1생성적 = 2근원적) 外部統辭論(2)”(= 1생성적/2근원적·3차적 근원<主觀>/변형<記述>/생성<行爲> 단계)에 해당하고, ‘둘째로(변형 “(2)”의 경우)’: “下: F M”의 “M”/“上: (M)/(F)”의 “(F)”/“下的 M”과 “上的 (F)”의 “짜”은 각각 “(2생성적 = 2변형적) 外部統辭論(2)”(= 2생성적/2변형적 3차적 근원<굴절적 1·2人稱>/변형<동사적·內部적 3人稱>/생성<대명사적·外部적 3人稱>)에 해당한다(\*앞 “一般形態論(1)/(2)”의 “(1)”과 “(2)”의 “설명 項” 참조; \*뒤 “附錄: 一般形態論의 同形の 조직” 참조).

\*위 그림에서 “理論 단계(1)/(2)”와 “外部統辭論(1)/(2)”가 “非力學적 조직”에서의 “순환론적 等方向적 반복(↓↓)”과는 달리 “逆方向(↓↑)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상에서 對比한 “非力學/力學”이라는 단순한 구별을 떠나서, ‘傳統적 歷史比較言語學’의 ‘理論’(↓)

과 '再構形(↓)'의 '等方向性'과는 달리 '等方向적 언어 사실' 즉 再構形(↓)<sup>3)</sup>을 "力學적 조직"의 '再構'에 이용하되 그것을 '탈피' 내지 '제거/배제' 하는 힘을 그 자체 안에 스스로 지니고 있는 '再構形'임을 뜻한다.

4) 外部統辭論(1)/(2)의 "助詞"와 "尊待"의 力學적 조직: 결론.

"一般形態論(1)/(2)" 즉 "尊(助)" = "형태(의미)" = "F(M)"과 "內部統辭論(1)/(2)" 즉 "(尊)助" = "(형태)의미" = "(F)M"의 "생성" 단계로서의 "外部統辭論(1)/(2)" 단계 즉 "M(의미/助詞)적 (= 변형 "1(1)"/"2(2)"적)" "F(M) = 尊(助)" 즉 "M(F) = 助(尊)"은 위 "(<sub>1</sub>근원-/<sub>1</sub>변형적) 外部統辭論(1)"과 "(<sub>2</sub>근원-/<sub>2</sub>변형적) 外部統辭論(2)"를 각각 갖춘, "助詞"와 "尊待"의 "짜"이다. 즉 \*위 "非力學적 조직"으로서의 "助詞"와 "尊待"에서 그것을 '再構'에 이용하되 결국 그것을 '脫皮' 내지 '제거/배제'한 "力學적 조직" 즉 "助詞"의 경우는 "∅"으로서의 "-이다"〈指示辭〉를 필두로 한 "-이/가"〈被指示〉를, "尊待"의 의 경우는 "반말"로서의 "-이다"〈指示辭〉를 필두로 한 "-시"〈被指示辭〉를, 각각 "짜"으로 한 "변형: 1°, 1, 2/(1°), (1), (2)"의 "助詞와 尊待의 力學적 조직"이다. 이것을 한 눈으로 볼 수 있게 \*위 "그림 설명"을 토대로하여 '그림'으로 표시하고 '설명'을 붙이면 아래와 같다(\*화살표시 "↔"는 밑 "→"이 '먼저', 위 "←"가 '나중'임; 또 "의문"/"대답" = "먼저"/"나중"의 순서임; "/" 표시는 左/右 구분 표시임):





설명(1):

“助詞”의 경우는 ‘첫째로’(\*위의 “그림 설명”에서의)“(1근원적) 外部統辭論(1)” =“(1근원적·3차적) 1근<1行> (1근 1M 1行: “그 사람~을 먹들~” → 1변 1F 1記: “그 사람~을 좋아하들~”) → 1변<1記>(1근 1F 1記: “그 사람 ~을 좋아하들~” → 1변 1M 1主: “나~이 좋들~”) → 1생<1主>(1근 1M 1主: “나~이 좋들~” → 1변 1F 1記: “너~이 좋든~)”과 그 “1근/1변/1생” 각각의 괄호( ) 안의 “짝(複合)(1근 → 1변)”이 ‘逆方向化/구체화’ 됨으로써 ‘생성’ 되는 “人稱”으로서의 “(1변형적) 外部統辭論(1)” =“(1변형적·3차적) 1근<1변적 1근 人稱 = 1잠재 人稱> → 1변<1변적 1변 인칭 = 2潛在人稱> → 1생<1변적 1생 人稱 = 1구체 인칭>”에서의 각각의 人稱과 ‘짝’을 이루고, ‘둘째로’: 위 “1근원”과 “1변형”의 (內部적) ‘짝’의 ‘생성적/外部적 (= 위 “1근원”과 “1변형”을 ‘구체-逆方向化’ 시킨, 즉 “근/변/생” 및 “行/記/主”에 달린 숫자 “1”을 “2”로 하고, 화살 표시(→)를 逆(←)으로 한) ‘짝’으로서의 “(2근원적) 外部統辭論(2)” =“(2근원적·3차적) 2근<2行> (“그 사람 ~을 먹들” ← “그 사람 ~을 좋아하들~”) ← 2변<2記> (“그 사람 ~을 좋아하들” ← “나~이 좋들~”) ← 2생<2主> (“나~이 좋들~” ← “너~이 좋든~”)”가 “(2변형적 外部統辭論(2)) =“(2변형적·3차적) 2근<1잠재 인칭> ← 2변<2잠재 인칭> ← 2생<2구체 인칭>”에서의 각각의 人稱과 ‘짝’을 이룬다.

설명(2):

“尊待”는 “助詞”의 ‘逆方向적 짝’이므로, 이 점을 염두에 두고 “外部統辭論(1)/(2)”를 작성할 수 있다. 변잡을 피하기 위해서 ( ) 안에는 그 예만을 표시하고 “(2)”의 “근/변/생” 및 “主/記/行”은 괄호로 표시하여 위 “助詞”의 경우와 같이 “外部統辭論(1)/(2)”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:

1) (1근원적<2근원적>) 外部統辭論(1)(2) = (1근적<2근>적·3차적) 1근(2근)<1主(2主)> (“반말 의문”: “그 사람~냐?” ⇄ “반말 대답”: “그 사람~이야”) ⇄ 1변<1記(2記)> (“반말 의문”: “그 사람~이냐?” ⇄ “客語 尊待 대답”: “그사람~이시다”) ⇄ 1생(2생)<1行(2行)> (“主·客語 존대 대답”: “그분~이시다” ⇄ “極尊待 대답”: “그분~이십니다”);

2) (1변형<2변형>적) 外部統辭論(1)/(2) = (1변<2변>적·3차적) 1근(2근)<1잠재 인칭> ⇄ 1변(2변)<2잠재 인칭> ⇄ 1생(2생)<1구체(2구체)> 인칭”.

\*주의: 이상의 “尊待와 “助詞”의 각 단계는 “(深層적) 나무 그림”<sup>4)</sup>에도 배치·분석할 수 있음에 \*주의.

이상에서 우리는 助詞와 尊待法이라는 ‘전통적·物理적 사실의 짝’을 中心 즉 共通基로

3)/4) \*안 “註1”의 “變形理論과 그 類型의 定立作業”/“記號의 非恣意性과 文法體系” 참조.

하여, “深層-/形態-/力學적 人稱의 조직”으로서의 “指示 → 被指示의 짝의 조직”과, 그것을 ‘간접적으로 뒷받침(支持)하는 데 적절한 物理적 사실의 짝’으로 (再)整理된 “表面-/實物 意味-/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짝의 조직”과를 對比시킴으로써, “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짝의 조직”에 있어서의 “選擇·意圖의 主體” 즉 “指示 요소”가 ‘脫物理-/精神적 言語活動의 조직’에 있어서의 “너” 중심의 “근원적 人稱” 즉 “ $\underset{\times}{\text{尊}}(\underset{\times}{\text{助}}) = \underset{\times}{\text{너}}(\underset{\times}{\text{나}}) = \underset{\times}{\text{形}}(\underset{\times}{\text{意}}) = \underset{\times}{\text{F}}(\underset{\times}{\text{M}})$ ”으로 대표되는 ‘有限 反復의 출발항’으로서의 “근원적 形態”임에 반하여, “非力學적 指示 → 被指示의 짝의 조직”에 있어서의 “主體”는 ‘實物·物質적 言語活動’의 “나” 중심의 “表面적 人稱” 즉 “ $\underset{\times}{\text{助}}(\underset{\times}{\text{尊}}) = \underset{\times}{\text{나}}(\underset{\times}{\text{너}}) = \underset{\times}{\text{意}}(\underset{\times}{\text{形}}) = \underset{\times}{\text{M}}(\underset{\times}{\text{F}})$ ”로 표시되는 “表面적 意味를 深層적 形態로 誤認·錯覺한 사실상의 意味” 즉 ‘無限反復 내지 循環論의 출발점’으로서의 “實物적 人間”임을 지적한 바 있다.

이 (“力學적 조직”과 “非力學적 조직”의) 比較는 곧 겉으로 보기에는 추상적이어서 안 움직이는 듯하나 사실상으로는 움직이는 分析活動 즉 ‘精神(= 形態)의 테두리 안에서 物質(= 意味)을 精神(= 形態)으로 分析’ 함으로서 物質(= 意味)이 精神(= 形態)적 성격을 띠게 되는 等質적·有限反復적·精神적 分析을 그 ‘唯一한 分析原理’로 삼는 ‘深層分析적 관점’이, 겉으로는 구체적이어서 움직이는 듯하나 사실상으로는 안 움직이는 (實物로서의 人間 = 意味 중심의 選擇·意圖를 恣意적·人爲적으로 설정하여 그것으로 부터 言語 = 形態를 설명하는) 人爲적 分析活動 즉 ‘物質(= 意味)의 테두리 안에서 物質(= 意味)을 物質(= 意味)로 分析’ 함으로써 여전히 物質(= 意味)로 남게 되는 異質적·無限反復적·表面적 分析을 ‘근원적 形態 즉 深層적 分析’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전통적 관점을, 否認 내지 제거/배제하는 힘을 그 자체 안에 스스로 지닌 ‘統一화된 근원적 人稱의 조직의 理論’ 또는 ‘근원적 言語活動의 조직의 理論’임을, 보이는 것이었다.

다른 한편으로 (본 연구에서는 지적되지 않았으나 이미 지적된 바 있는<sup>5)</sup> 위 ‘比較’와 一見 그 궤도를 같이 하는 듯 보이는 ‘比較’로서 위 “근원적 力學적 관점”과, 전통적 관점을 ‘탈피’하면서도 여전히 ‘實物·意味적 테두리’에 머물고 있는 “전통적·假 근원 단계의 力學적 관점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점과의 ‘比較’를 들 수 있다.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서 구분한 “근원적 理論(一般<人稱>音韻論) → 一般形態論(1)/(2) → 內部統辭論(1)/(2) → 外部統辭論(1)/(2)”의 단계를 밟지 않고 직접으로 “外部統辭論”을 다루면서 그것을 ‘근원적 설명’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“假外部統辭論 단계”와의 比較가 곧 그것이다.

위와 같은 특징을 지닌 “統一화된 指示 → 被指示의 짝의 조직” 즉 ‘근원적 人稱의 力學적 조직의 理論’은 전통적 관점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言語活動의 근원적·深層적 조직을 파악하는 데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.

5) 앞 “註1)”의 “位置言語學과 統辭論” 참조.

현대 한국어의 一般形態論(1) ↓/(2) ↑의 同形の 조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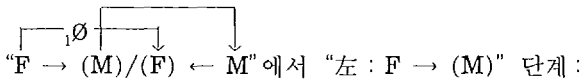
\*숫자 및 순서 표시에서 “(I)/(II)/(III)”은 “일차적 근원(屈折: “屈”)/변형(動詞: “動”)/생성(代名詞: “代”)적 指示(被指示)” 그리고 “(I)/(II)/(III)” 각각의 “변형”: “∅”/“1°”/“1”은 그 각각의 ‘근원적 변형의 성격’을: “(1)/(2)/(3)”은 “2차적 근/변/생적 指(被)”; “<sub>1</sub>C/<sub>2</sub>C/D”는 3차적 근/변/생적 指(被): “指”(“指”) 및 “被”(“被”)는 “먼저”(“나중”): “<sub>1</sub>근(屈)/<sub>1</sub>변(動)/<sub>1</sub>생(代)~<sub>2</sub>생(代)”에 달린 숫자 표시(“1/2”)는 “一般形態論(1) 단계(↓)”를 각각 표시한다. 또 위 각각의 位置에서의 “指(被)”를 “(橫적)對角線 그림”과 그에 대응하는 “韓語의 예”로써 명시한다.

(I) <sub>1</sub>근 = <sub>1</sub>屈적 指(被) 단계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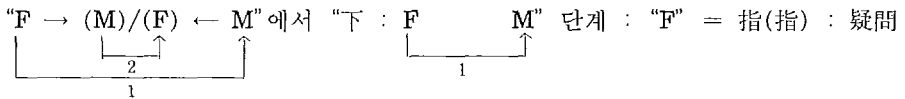
변형 “∅” 단계

=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左: F → (M)” 단계:

(1) <sub>1</sub>근 = <sub>2</sub>屈적 指(被) 단계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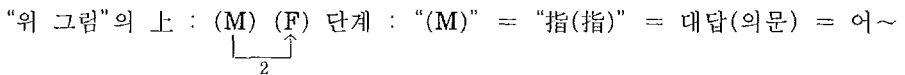


<sub>1</sub>C : <sub>1</sub>근 = <sub>1</sub>屈적 指(被) 단계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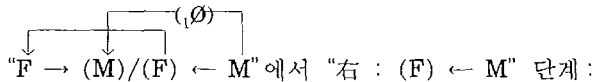
(대답) = “야(이아)?(“”)”/“M” = (被)被: (∅)∅:

<sub>2</sub>C : <sub>1</sub>변 = <sub>1</sub>動적 指(被) 단계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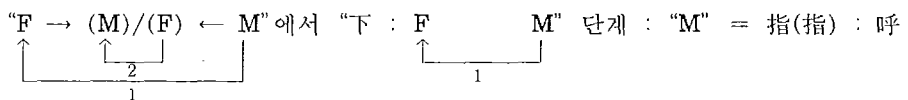


아(“)/“(F)” = “(被)被”: (∅)∅:

(2) <sub>1</sub>변 = <sub>1</sub>動적 指(被) 단계:




D : <sub>1</sub>근 = <sub>1</sub>屈적 指(被) 단계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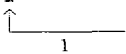
格~감탄(“) = 야!(“)/“F” = “(被)被”: (∅)∅:

1C : 1번 = 1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: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F)” = “指(指)” : 自問(自答) =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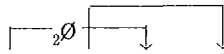
-나~-가?(“)/“(M)” = “(被)被” : (∅)∅;

2C : 1생 = 1代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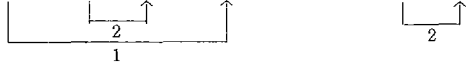
“위 그림”에서 : “下 : F M” 단계 : “M” = 指(指) : 自答(自問) = 

-어~-아(“)/“F” = “(被)被” : (∅)∅;

(3-1) 1生 = 1代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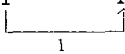
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左 : F → (M)” 단계 :

D : 1근 = 1屈적 指(被)단계 :
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M)” = “指(指)” : 肯定 


對答 期待(肯定 對答) = -지(“)/“(F)” = “(被)被” : (∅)∅;

1C : 1번 = 1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M” 단계 : “F” = “指(指)” : 대답(대답) =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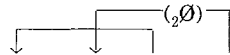
-어 ~ -아(“)/“M” = “(被)被” : (∅)∅;

2C : 1생 = 1代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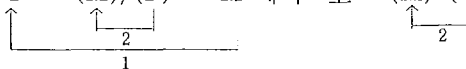
“위 그림”에서 上 : (M) (F) 단계 : “(M)” = “指(指)” : 반문(“) = -냐고 

(“)/“(F)” = “(被)被” = (∅)∅;

(3-2) 2생 = 2代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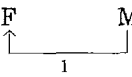
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右 : (F) ← M” 단계 :

1C : 1근 = 1屈적 指(被) 단계 :
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F)” = “指(指)” : 의문 


인용 연결(“) = -냐고(“)/“(M)” = “(被)被” : (하더)하더;

2C : 1변 = 1代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M” 단계 : “M” = “指(指)” : 대답 인용 연결  


(“”) = -어 ~ -아(“”) / “F” = “(被)被” : (하더)하더 :

D : 1생 = 1代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F)” = “指(指)” : ‘1<의문-대답>의  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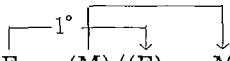
併置의 인용 連結 (“”) = -지(“”) / “(M)” = “(被)被” = (-모르겠)-알겠 :

(II) 1변 = 1動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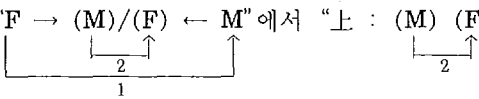
변형 “1°” 단계

= “F → (M) / (F) ← M”에서 “左 : F → (M)” 단계 :

(1) 1근 = 1屈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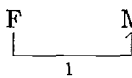
  
“F → (M) / (F) ← M”에서 “左 : F → (M)” 단계 :

D : 1근 = 1屈적 指(被) 단계 :

“F → (M) / (F) ← M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M)” = 指(指) : 主觀  



적 連結 · 時制語尾形(非主觀 “”) = “-겠 ~ -고있 ~ -았 · 었 ~ -ㄴ(는)…” (“ ”) / “(F)” = “被( ”) = “알 - ~ 모르 - …”(“ ” ~ 가 …”).

1C : 1변 = 1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M” 단계 : “F” = “指( ”) : 主觀적 目的語形  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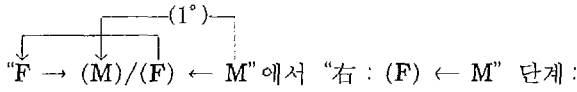
(非主觀 “”) = “(이 그 저)것( < ”)말, 사람…” / “M” = “被( ”) = “-겠 ~ -고있 ~ -았 · 었 ~ -ㄴ ~ -Ø ~ -는 …”(“ ” “ ”).

2C : 1생 = 1代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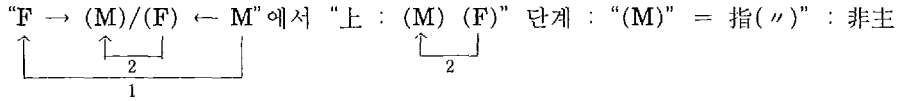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M)” = “指( ”) : 主觀連結語尾形  


(非主觀 “”) = “-고-~-게-~-아 · 어-~- Ø- · 는-”(“ ” “ ”) / “(F)” = “被( ”) = 主觀時 制語尾形(非主觀 “”) = “-ㄴ-~-있-~-Ø · ㄴ-”(“ ” “ ”).

(2) 1변 = 1動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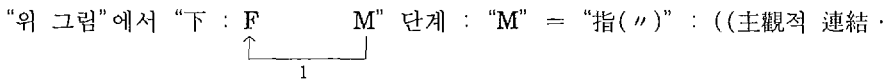


D : 1근 = 1屈적 指(被) 단계 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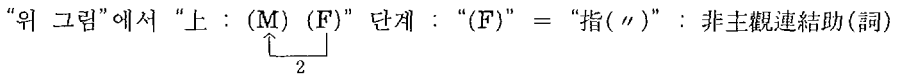
觀 連結적 지시사 (主觀 〃 〃) = "(먹)고(말다)~(먹)어(버리다)~(먹)게(하·되다)~(먹)지(아니하다)~(먹)기(도·는·만 하다)"("<먹>고<싶다>~<먹>어<보았다>~섭섭하)게 <도> <못간다>~<먹>지<못한다>~<먹·가>기<쉽·어렵·좋·싫>~<먹·가>음·口<직하다>)/"(F)" = "被(〃)" = "-말(다)~버리(다)~-하·되(다)~-아니하(다)~-하(다) ("-싶<다>~-보았<다>~-못가<다>~-못하<다>~-쉽·어렵·좋·싫<다>~-직하<다>").

1C : 1변 = 1動적 指(被) 단계 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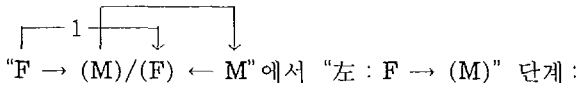
助<詞>動<詞>形 지시사(非主觀 〃 〃) = "(먹)고<도·는·만>싶(다)~(먹)어<〃>보았(다)~(섭섭하)게(도)못하(ㄴ다)~(먹)지<〃>못하(ㄴ다)~(먹·가)기<가·도·는·만>쉽·어렵·좋·싫~(먹·가)음·口<직<〃>하)"("<먹>고<도·는·만>말<다>~<먹>어<〃>버리<다>~<먹>게<〃>하·되<다>~<먹>지<〃>아니하<다>")/"F" = "被(〃)" = 主觀·本動形 피지시사(非主觀 〃) = "먹·가~섭섭하"("먹·가").

2C : 1생 = 1代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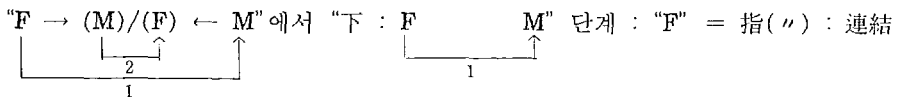


動(詞)形 지시사(主觀 〃) = \*위 "2C"의 逆임/"(M)" = "被(〃)" : \*위 "2C"의 逆임.

(3) 1생 = 1代적 指(被) 단계 :




1C : 1근 = 1屈적 指(被) 단계 :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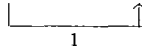
語尾形 지시사(終結 “”) = “(밥 좀 먹)게 (조용해라)~(내가 아까 보)니까 (그 사람 가더라)” (“<저리가>게!~<가ㅂ>니까?”)/“M” = “被(“”)” = “먹”~ “보”(“가”~“가ㅂ”).

(2C) : 1변 = 1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M)” = “指(“”)” = \*위 “1C”의 逆임/  


“(F)” = “被(“”)” = \*위 “1C”의 逆임.

(D) : 1생 = 1代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의 下 : F M 단계 : “F” = “指(“”)” = \*위 “1C” 과 外形이  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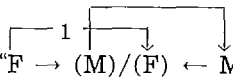
같되 代名詞가 나타남/“M” = “被(“”)” = \*위 “指”와 같음.

(Ⅲ) 1생 = 1代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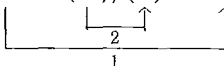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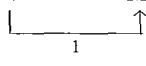
변형 “1” 단계

= 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左 : F → (M)” 단계 :

(1) 1근 = 1屈적 指(被) 단계 :

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左 : F → (M)” 단계 :  


1C : 1근 = 1屈적 指(被) 단계 :
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下 : F M” 단계 : “F” = 指(“”) : 近稱  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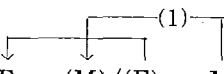
(中稱) 지시사 = “이”(“그”)/“M” = “被(“”)” : 遠稱 피지시사 = “저”(“”).

2C : 1변 = 1動적 指(被) 단계 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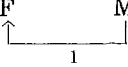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M)” = “指(“”)” : 與格形 지시사  


(“所有格 “”) = “에게<께>”(“의”)/“(F)” = “被(“”)” : 2人稱형 지시사(1인칭 “”) = “너”(“나”).


(2) 1변 = 1動적 指(被) 단계 :
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右 : (F) ← M” 단계 :  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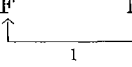
D : <sub>1</sub>근 = <sub>1</sub>屈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M” 단계 : “M” = “指(〃)” : 1人稱 지시사(2  
  
 인칭 〃) = “나”(“너”)/“F” = “被(〃)” : 不定形 피지시사(〃) = “누구” ·  
 “아무개” (“〃”).

<sub>1</sub>C : <sub>1</sub>변 = <sub>1</sub>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F)” = “指(指)” : 目的格形 지시사  
  
 (主格 〃) = “을·를”(“이·가”)/“(M)” = “被(〃)” : 目的格形 피지시사(主  
 格 〃) = “너”(“나”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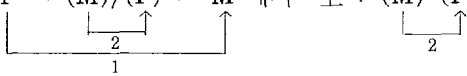
<sub>2</sub>C : <sub>1</sub>생 = <sub>1</sub>代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M” 단계 : “M” = “指(〃)” = 主格·零格形  
  
 지시사(目的格·〃) = “<명사>밥 + Ø”(“〃”)/“F” = “被(〃)” : 어휘성 피지  
 시사(〃) = “어느” · “새” · “무슨·몇...”.

(3-1) <sub>1</sub>생 = <sub>1</sub>代적 指(被) 단계 :
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左 : F → (M)” 단계 :

D : <sub>1</sub>근 = <sub>1</sub>屈적 指(被) 단계 :
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M)” = “指(〃)” : 終結  


적·不完全 冠形形 지시사(連結적 〃) = “(어)느~(무)슨~(어)떤~이·그·  
 저)린...” (“<어느>것~<무>엇~<누>구”)/“(F)” = “被(〃)” : 종결적·3인칭 대  
 명사·여격·특수조사형 피지시사 (연결적·1/2인칭·대명사·주/목적격 조사  
 형 피지시사) = “그~-에게(께)~-이·가~-을·를~-도·는·만~(주다)  
 + Ø<목적격형 반말>~(드리) + Ø·(가) + ㅂ<〃존대접사>~가(ㅂ니)<極존  
 대>~(먹) + Ø <非피동형 접사>~(먹)히(다)<피동형 접사>~(가더)ㄹ(아)·  
 (먹어)ㄹ(아)<대답·명령형 종결어미형 특수조사>~(-고있·먹)는.(먹)은·  
 (하)ㄴ.(먹·하)ㄴ <관형형 특수조사>...~(가)더(ㄴ이야?)·(가)더ㄹ(아) <동  
 사형 복수접사>~(빨리)들·(가)들(자거라)<부사형 복수 접사>”... (“나·너~  
 에(께)서~-이·가~-을·를~(먹) + Ø <주격형 반말>~(잡수) + 시<주격형



존대접사)~(먹) + Ø <非사역형 접사>~(먹) + 이<사역형 접사>~(가더·가  
느)ㄴ(야?)/<의문·대답형 종결어미형 특수조사>~(나~떡)  
는~은/(나~떡)를~을<명사·대명사형 특수 조사>...~(가ㄴ)다/(가)더(르아)  
<직접/간접 종결·연결어미>~(우리~사람)들 <대명사·명사형 복수접사>”...).

1C : 1번 = 1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下 : F  M 단계 : “F” = “指(〃)” : 명사형 지시사(관  
형 〃) = “것”(“-ㄴ”)/“M” = “被(〃)” : 명사형 피지시사(관형형 〃) = “먹”  
(는 것)(“떡<는>)”...

2C : 1생 = 1代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上 : (M) (F) 단계 : “M” = “指(〃)” : \*위 “1C”의 逆임/  
“F” = 被(〃) : \*위 “1C”의 逆임.

(3-2) 2생 = 2代적 指(被) 단계 :
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右 : (F) ← M” 단계 :

1C : 1근 = 1屈적 指(被) 단계 :

“F → (M)/(F) ← M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F)” = 指(〃) : 1/2인  
칭형·주관동사형 지시사(3인칭형·기술동사형 〃) = “나·너(그사람 좋~  
싫)” (“그사람<키 크~작>”)/“(M)” = “被(〃)” : 주관형 피지시사(기술형 〃)  
= “그사람 (좋~싫)” (“키<크~작>”).

2C : 1번 = 1動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下 : F  M” 단계 : “M” = “指(指)” : 3인칭형·기술동  
사형 지시사(1/2인칭형·주관동사형 〃) = “키(크~작)” (“그사람<좋~싫>”)/  
“F” = “被(〃)” : 3인칭형 피지시사(1/2인칭형 〃) = “(키)크~작” (“<그 사  
람>좋~싫”).

D : 1생 = 1代적 指(被) 단계 :

“위 그림”에서 “上 : (M) (F)” 단계 : “(F)” = “指(〃)” : 1/2인칭형·주관

동사형 지시사(3인칭형 · 기술동사형 · 지시사) = “나 · 너 그사람(좋 ~ 싫더라/  
 더냐)” (“그사람 키 크 ~ 작<더라>”) / “(M)” = “彼(〃)” : 1/2인칭형 피지시사  
 (3인칭 형 〃) = “중 ~ 싫더르(들)” (“크 ~ 작더르<들>”).

---

\*주의: 韓語에 대응하는 ‘佛語의 一般形態論의 조직’에 대해서는 \*앞 註(1)의 L'Analyse  
 Synaptique (Non Arbitraire) de Forme/Matière: Représentation Métalinguistique et  
 Nominalisations en Français-Coréen 참조.